

## 개미와 베짖이

뜨거운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여름이었어요. 개미들은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느라 바빴어요. "영차, 영차! 열심히 일을 하자."

하지만 베짖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지요.

"나무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나는 이 계절을 너무나 사랑해."

어느 날 베짖이는 먹이를 잔뜩 지고 지나가는 개미들을 보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니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구나. 이렇게 먹을 게 널렸는데 말야."

그러자 개미들이 대답했어요. "여름에 이렇게 일을 해야 추운 겨울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너도 그만 놀고 함께 먹이를 모으자."

베짖이는 개미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나 해. 여름은 길고, 겨울은 아직 멀었거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어요. 낮은 점점 짧아져 어느새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더니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왔어요. 베짖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먹이를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땅에도 나무에도 눈이 쌓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짖이는 흰 눈을 뽀뽀뽀 밟으며 개미들을 찾아 갔어요.

"누구세요?"

"나, 베짖이야.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주겠니? 씨앗 하나라도 좋아."

개미들은 대답했지요.

“우리는 여름에 추운 겨울을 위해 일을 했어. 하지만 넌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지.

이젠 누가 더 바보 같은 지 알겠지?”

그 말에 베짖이는 눈물만 똑똑 흘렸습니다.